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인권도시' 광주의 선택은

주민 조례 청구... 시의회 민주당 의원 대다수라 통과 미지수 학생 기본권 보호 vs 교권 침해... 서류 하자에 미상정 전망도

광주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가 접수됐다.

'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라는 점에서 해당 조례 폐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주민이 제출한 조례 처리를 담당하는 광주 시의회는 23명 의원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만큼 정서상 조례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광주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를 요구하는 주민 청구 서명인 명부가 시의회에 제출됐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서명 기간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난 19일까지로, 총 1만366명이 서명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조례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150분의 1(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수기로 서명한 주민이 9999명, 전자 서명 367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는 2일 각 자치구 주민등록 담당자들과 만나 회의를 한 뒤 같은 달 3일 청구인 명부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공표 후 10일 이내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각 자치구에서 한 달여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주소 불일치·서명 무효 여부 등 청구인 명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 절차 이후에도 청구 요건(8034명)을 충족한다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현재 광주시의회가 청구인 명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서류에 주소지가 모호하게 적혀있는 등 오류가 있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충족 요건이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된 서류는 전면 폐기된다.

안건이 운영위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30일 이내 의장 발의로 담당 상임위원회의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되며, 상임위 검토 후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의회는 이 과정이 빠르면 오는 7월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7월에는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기 때문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초

로 제정된 후 광주를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경기·충남·전북·제주)에서 잇따라 제정했다. 하지만, 앞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충남도는 지난 24일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검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의원들의 몫이지만 정서상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 조례를 기존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강한 것 같다"며 "역으로 2011년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어려움을 복기해보면 아마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주민이 청구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선 찬반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 권한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서다.

신수정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광주는 인권 평화의 도시이고 선도적이며 혁신적인 도시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주민 청구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광주시, 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 조례 폐지에 대한 다양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소독차 좀 따라 다녀서 지난 30일 오전 광주시 북구 풍향동 주민센터와 지역청년회원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택가 주변을 연막 소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선관위 자녀 채용비리 '기가 막혀'

감사원, 전남선관위 등 전·현직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은 지난 30일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기탄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

해 이런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별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제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제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점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전해주고 평점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중용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택시 부제 재도입하라"

법인 택시 기사들 "하루 2000대 증차로 수입감소·과로운전 고통"

광주지역 법인 택시 기사들이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재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법인 택시 노동조합 3개 단체(노동조합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 플랫폼택시 노동조합)는 지난 30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법인 택시 기사들은 택시 부제 해제 이후 하루 2000여대 택시가 증차되면서 수입감소와

과로운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택시 부제는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2년 11월 코로나19로 인한 택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해제했다. 기존에는 개인택시의 경우 2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3부제, 법인택시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6부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정부가 제시한 부제 재도입의 조건은 '최근 3년간 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현저히 감소한 지역',

'택시 실차율이 전국 평균 51.7%보다 높은 지역', '승차난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지역'일 경우지만 광주지역 법인택시 기사들은 수도권에 치중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택시 부제 해제 당시 광주는 심야승차난 발생지역이 아니었다"며 "부제 폐지로 하루 2000여대 택시가 증차해 7500대에 달하는 차량이 심야시간에 몰려 수입금이 감소해 택시요금 인상효과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택시부제는 지자체 권한"이라며 "광주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지침을 따른 광주시는 택시 부제 해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동학이 키운 독립 화수분' 답사하세요

11일 광주 서구·담양·남원 등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위한 동학 체험 답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난 30일 '협동조합 시민의 꿈'에 따르면 민주화의 열망이 깃든 현장을 찾아 역사를 배우는 '동학이 키운 독립 화수분' 답사가 동학혁명 기념일인 오는 11일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광주시 서구에서 만나 담양과 순창, 남원으로 이동해 현장을 살핀다.

담양 금성산성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 장군이 20여일간 수성군과 맞서 싸운 장소다. 전 장군은 김경천의 밀고로 순창군 피노리

에서 12월 2일 관군에게 체포돼 처형당했다.

답사팀은 이후 동학군의 은신처이자 저항 장소인 남원 교룡산성을 찾는다.

교룡산성(해발 518m, 길이 3.12km)은 김개남 동학 지도자가 농민들을 이끌고 관군에 저항했던 역사적인 장소로, 산세가 가파르고 우물이 많아 백성들이 전쟁 시 도피하기 좋은 천혜의 요새로 알려져 있다. 교룡산성 내부에 있는 절 선곡사는 동학군들의 은신처이자 김개남이 집강소를 설치했던 곳으로 전해진다.

참여를 원할 경우 포스터에 적힌 번호로 문자 신청을 하면 된다. 학생은 무료이며 이외 참가비는 1만 5000원이다.

/김다인 기자 kdi@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